

북경한미약품, 신제품·주력제품 폭풍 성장

“올 매출 3200억 돌파 도전”

기침가래약 제품 성장 기대
올 매출 전년비 3배 증가 전망
현지 의료진에게 호평 받아

한미약품그룹 중국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이 신제품 및 주력 제품의 고른 성장을 토대로 올해 연매출 3200억원 돌파를 예고했다.

20일 한미약품그룹에 따르면 2021년 2800억여원 매출을 달성한 북경한미약품은 연간 10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이탄징'과 600억원대 '마미아이' (어린이정장제), '리퐁' (변비약) 등 19개 제품을 중국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다.

북경한미약품은 최근 출시한 기침제 형태 기침가래약 '이안핑'이 매출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시 2년차를 맞는 이안핑이 올해는 전년 대비 약 3배인 300억원 이상 매출을 달성할 전망이다.

이안핑은 기침가래 치료 성분인 '암브록솔'을 중국 최초로 주사제에서 기화제로 바꾼 제품이다. 그동안 암브록솔 주사제는 중국 규제당국의 허가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적응증으로 사용되는 오프라벨 처방이 많았다. 북경한미약품은 이 같은 시장 상황을 빠르게 간파해, 중국에서 유일하게 임상 3상을 거친 뒤 기화제 형태로 제품을 최초 출시했다.

이안핑은 기침, 가래 증상을 신속하



증설된 북경한미약품 공장.

게 완화하는 것은 물론 향이 없어 어린이들에게도 약물 순응도가 높은데다, 호흡기에만 국부 작용하는 안전성 등 여러 장점이 겹쳐 중국 현지 의료진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북경한미약품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안핑 기반의 다양한 바이러스 관련 추가 임상을 통해 급성 호흡기 증상과 과민 면역 반응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입증하기도 했다.

북경한미약품은 작년 착수한 3800례 이상의 다기관 4상 임상을 올해 완료하고, 800회 이상의 호흡기내과 등 임상 학술 활동과 1000여 이상의 신규 병원 확보 등을 통해 처방 시장을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

북경한미약품의 이 같은 자신감은 1000억원대 블록버스터인 또 다른 기침가래약 '이탄징'의 성공 경험에서 비

롯됐다. 이탄징은 기침과 가래 증상을 빠르게 완화하는 효과로 작년 4500만 병 이상 판매됐는데, 이는 중국 연간 신생아수 1200만명 대비 4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탄징의 작년 매출은 전년 대비 67.4% 성장한 1079억원에 이르고 있다. 북경한미약품은 이같이 급증하는 시럽제 수요에 발맞춰 작년 10월 584억원을 투자해 중국 내 최대 규모로 시럽제 생산라인 증설도 마쳤다.

임해룡 북경한미약품 총경리는 “중국 시장에 진출한 제약기업 중 북경한미약품처럼 자체개발한 다양한 제품을 블록버스터로 육성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올해도 북경한미약품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호실적을 통해 제약 강국을 향한 글로벌 한미약품의 여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대용제약 항암제 피부부작용 치료제 임상 2상

‘EGF 크림제’ IND 승인 받아

대용제약이 국내 생명공학 신약1호 ‘이지에프(EGF·상피세포 성장인자)’의 신규 적응증 확대를 통해 암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나선다.

대용제약은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DWP708’ EGF 크림제의 임상 2상시험 계획(IND)을 승인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임상 시험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를 타겟으로 하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억제제(EGFRi) 항암제 투여 환자에게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피부의 발진, 여드름양 발진 등의 피부 부작용을 위한 것이다.

EGFRi 항암제로 인한 피부 부작용

은 항암 효과가 좋은 환자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며,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항암 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EGF 크림제는 EGFR을 타겟으로 하는 항암제 이외에도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염 등에도 유효할 것으로 기대된다.

EGF는 인체 내 존재하는 단백질로 세포의 증식, 분화에 관여하며 손상된 조직을 치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용제약은 이번 임상 2상을 계기로 EGF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의 피부 상처 궤양의 치료 이외의 적응증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국내 생명공학 신약 1호인 이지에프가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기가 마련됐다.

/이세경 기자

JW홀딩스, 중동서 국산화 의료기기 선배

‘아랍헬스 2022’ 독립부스 참가

JW홀딩스는 오는 24일부터 나흘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2022 UAE 두바이 의료기기 전시회(아랍헬스)’에 참가해 JW그룹의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아랍헬스는 올해 47회를 맞는 중동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박람회다. 지난해에는 주최측 추산 62개국 176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3만4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다.

JW홀딩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국내 10여개 기업이 참여해 수술실에서 필요한 의료기기를 전시하는 한국의료기

기 통합전시관을 비롯해 행사 메인관에서 독립부스를 열고 JW 제품을 소개한다. JW홀딩스가 아랍헬스에서 독립부스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JW홀딩스는 진단시약·의료기기 연구개발 전문기업인 계열사 JW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기술력으로 국산화한 LED무영등, 수술대, 검진대, 등 필수 의료기기를 대거 선보인다.

이와 함께 JW중외제약의 상처 케어 밴드 ‘하이맘’ 제품군, HA필러 ‘이니티움’도 전시한다. 또 JW홀딩스가 지난해 스마트 광학 테크기업 아이엘사이언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기로 한 두피-헤어케어 브랜드 ‘폴리닉’ 제품도 공개한다. /이세경 기자

기능성·스타일 다 잡은 아웃도어 ‘눈길’

오클리 내수성 높은 신제품 출시
K2 고어텍스 소재에 실용성 갖춰
레드페이스 엑스 워 앤 드라이 소재
보온성 높고 포근한 착용감 유지

패션업계가 트렌디한 스타일을 강화한 것은 물론 제품 본연의 우수한 기능을 내세워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 개발 기술과 기능성 소재 등으로 차별화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스키, 보드 등 겨울 스포츠 대목을 맞아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독자적인 기술을 더해 아웃도어 및 스포츠 활동에 최적화된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레드페이스 서플 본딩 카고 팬츠. /레드페이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오클리는 실상 위, 도심 속에서도 멋스럽게 착용할

수 있는 ‘스노우 컬렉션’을 출시했다. 오클리의 ‘FN Dry 10K 라미네이트’라는 독자 기술을 적용해 내수성이 뛰어나다. 대표 제품인 ‘TC 건 쉘 2L 자켓’은 플라스틱병을 사용한 재활용 폴리에스테르로 제작해 가벼우면서도 통기성이 우수하고, O-프로젝트 DW R(Durable Water Repellent·초발수 가공) 원단이 땀과 물이 쉽게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K2가 선보인 ‘시그니처 고스트 다운’은 방풍성과 투습성이 뛰어난 고어텍스 인피니움 소재를 사용해 따뜻하게 착용하기 좋은 야생형 스타일의 다운이다.

살아있는 동물에게서 털을 강제 채취하지 않은 책임 다운 기준(RDS)을 받은 구스 다운 충전제를 사용했으며, 후드에는 탈부착이 가능한 4cm의 라쿤피를 적용해 보온성과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레드페이스는 혹한기 대비를 위해 탁월한 보온성에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까지 발휘하는 방한 팬츠를 선보였다.

서플 본딩 카고 팬츠는 특수한 단면 구조로 모세관 현상이 탁월해 빠른 속도로 땀, 수분을 흡수 및 건조시키는 이 엑스 워 앤 드라이 소재를 적용했다. 안감엔 기모 원단을 더해 움직임이 많은 하체의 보온성을 한층 높였으며, 장시간 입어도 포근한 착용감을 유지시켜 준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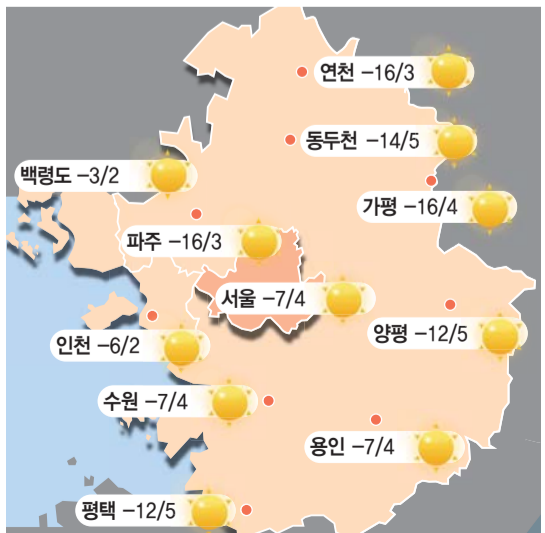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3 | 해질 / 17:43

1월 21일 (금)
음력 : 12월 19일

수도권 날씨
-7 ~ -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CJ제일제당, ‘고메 1인용 사각피자’ 3종

피자 형태·메뉴 다양화 나서

CJ제일제당이 고메 피자의 메뉴와 형태를 다양화하며 MZ세대 등 소비자 입맛 사로잡기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간식과 가벼운 식사로 좋은 ‘고메 1인용 사각피자’ 3종(사진)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한 손에 들고 먹을 수 있도록 종이 트레이가 동봉된 직사각형 형태의 제품으로, 최근 온라인 시장 확대에 맞춰 온라인몰과 흡수포 중심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메뉴는 ‘꿀고구마치즈 피자’, ‘케이준프라이즈 피자’, ‘허니베이컨체다 피자’ 3종이다. 전자레인지 2분30초, 에어프라이어 4분 내외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애슐리킨즈 “생딸기 무제한으로 즐기세요”

이랜드이츠의 대표 뷔페 브랜드 애슐리킨즈가 20일부터 딸기 시즌 신메뉴를 출시하며, 무제한 생딸기 축제에 돌입한다.

매년 초에 열리는 애슐리킨즈의 생딸기 축제는 매일 새벽 매장으로 입고 되는 신선하고 당도가 높은 산지 직송 생딸기를 활용해 트렌디하고 다채로운 디저트 레시피를 선보인다.

올해는 전국 애슐리킨즈 매장에서



‘스트로베리 인 원더랜드’란 테마로 진행되며, 신메뉴 15종을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